

濟州方言과 國語史 研究

이 기 문*

1

국어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 첫째로 의존하는 것이 역대의 문헌입니다. 그런데 국어의 기록은 한글의 창제로 15세기 중엽에 전면적으로 또 정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새벽 하늘의 별처럼 드뭅니다. 한자로 표기된 국어 자료들은 양이 적을 뿐만 아니라 질도 좋은 편이 못됩니다. 따라서 문헌 자료에 의한 국어의 역사적 연구는 15세기 이후에 치우쳐 왔고 그 이전 단계에 대한 연구는 극히 단편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헌의 결핍을 보충하는 자료로서 방언이 주목을 받아 왔습니다. 우리 나라의 방언 연구는 전반적으로 볼 때, 아직 조사조차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문헌에 의한 연구의 결과를 확인해 주기도 하고 문헌만으로 행한 연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생생한 역사를 되살려 주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방언의 조사 및 연구가 더욱 넓게 또 깊게 이루어진다면 국어사의 어둡한 모퉁이들이 밝혀지게 되리라는 기대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를 가장 크게 받아온 것이 제주 방언입니다. 국어의 여러 방언들 중에서 가장 특이한 만큼 이에 대한 기대도 큰 것이었습니다. 이 기대에 부응하여 이 방언의 조사 연구는 그 동안 정력적으로 이루어져 큰 성과를 거두어 왔으며 그것이 국어의 역사적 연구에 공헌한 바는 이루 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서울대 교수

2

제주 방언은 중세국어의 모음 ‘·’에 대응하는 모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 해서 일찍부터 각별한 주의를 끌어 왔습니다. 실상 이 모음을 보존하고 있는 유일한 방언이라는 점 하나만으로도 제주 방언의 가치는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모음은 오랫동안 국어사 연구의 핵심이 되어 왔으며 국어사 연구는 여기서 싹트고 자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주 방언이 없었다면 이 모음 연구, 중세국어의 모음체계에 대한 연구는 오랜 방황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19세기와 20세기의 교체기에 ‘ㅣ’-‘합음설(주시경)이 나오게 된 것도 이 방언을 몰랐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고 매우 유력했던 이 설이 30년대에 와서 물러서게 된 것도 이 방언에서 이것이 단모음임이 알려지면서였습니다.

제주 방언의 이 모음의 음가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여러 견해가 있었지만(小倉進平 1931, 이극로 1937, 河野六郎 1945 등) 저로서는 현평효(1963)와 김한곤(1980)에서 믿음직한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평효(1963)는 이 모음의 발음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들었습니다. (1) 혀가 뒤로 쭉 물러나고 연구개가 쳐들어짐, (2) 혀의 높이는 ‘ㄱ’보다 훨씬 낮고 ‘ㄱ’보다 약간 높음, (3) 개구도는 ‘ㅏ’의 그것보다 하악만 조금 올려서 좁아진 것임. 이러한 정밀한 관찰을 토대로 하여 이 모음은 “ㅏ의 후고음”이라고 결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훈민정음 해례」가 설명하고 있는 ‘·’의 발음상태와 매우 가까운 것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뒤 김한곤(1980)은 소노그래프를 이용한 음향 분석을 통하여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 모음의 음가는 [ɐ]에 해당하며 이것은 “[o]에서는 가장 거리가 멀고 [ə]에서도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그 반면에 [a]와의 거리는 그 보다도 훨씬 가까움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모음과 관련하여, 오늘날 그것이 둘째 음절 이하에는 일반적으로 ‘ㅣ’로 변하였음과 y가 앞선 상황 이중모음 yɐ가 단어의 첫머리에 보존된 예들이 있음이 지적된 것(이승녕 1954, 1957)은 국어 음운사의 관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첫째 사실에 주목하면서 이승녕(1954)은 이것이 17세기 전후의 문헌들이 보여주는 증언어의 상태를 방불케 한다고 했습니다. 16세기라

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보아, 이 변화가 제주 방언에서 일어난 것은 그리 오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중앙어와 제주방언이 오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동일한 방향의 변화를 입은 것은 무척 흥미깊은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주 방언에서 *yɔ*의 존재를 확인한 것은 국어 음운사 연구의 도정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입니다. 이 확인은 지난 56년 정월이었는데 그 때에 얻은 것은 *yɔsət* (6), *yɔdɔp* (8)을 비롯한 몇 예였습니다. 이 예는 그뒤 많이 추가되었습니다(현평효 1962). 이 중 *yɔdɔp*(현평효 1962에는 *jɔdɔp*, *jɔdap*, *jɔdɔ*)은 18세기의 신경준이 「운해훈민정음」에서 든 방언형 ‘으뜸’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실상 그 때에는 18세기의 이 기록이 이 이중모음에 대한 인식을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사실이 나중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증세문헌에 ‘여뚝’과 ‘여뚝’의 두 어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yʌtʌ* *ɾp*에서 *yʌtʌɾp*을 거쳐 *yʌtʌɾp*으로 변한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양형의 공존은 중앙어의 **yʌ*>*yə*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15세기보다 그리 멀지 않은 과거였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훈민정음 해례」에 이미 다음과 같은 중요한 기술이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一起 } 聲 於國語無用 兒童之言 邊野之語 或有之當合二字而用 如기긔之類.” 여기서 주목되는 사실은 제주 방언에서 확인된 *yɔ*는 어두에 한정되어 있는데, 정작 「해례」는 *kyʌ* 즉 어두 자음 뒤의 예를 들고 있는 점입니다. 현대 제주 방언에 이런 분명한 예는 없지만 그 희미한 흔적 같은 것이 혹시 남아 있지 않을까. 저는 현평표(1962)의 정성어린 방언 수집의 덕으로 이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이기문 1977).

- čɔp, 겁<*kyʌp(重)
- čɔɾɪr, 거를<*kyʌɾɾɾ(暇)
- čɔnti-, 견티-~견퇴-<*kyʌntʌy-(忍)
- čʌɾi-, 더락-~더르-<*tyʌɾʌ-(短)
- čɔs, 젓<*cyʌs(乳)
- čɔmur-, 저물-~점글-<*cyʌmkʌɾ-(暮)
- sɔ-, 서-<*syʌ-(立)
- ssɔ-, 혀-<*hyʌ-(點火)
- ssɔ-, 혀-<*hhyʌ-(引)

이렇게 볼 때, 제주 방언의 *yɔ*의 존재는 이 방언이 분명히 15세기 중엽의

중국어의 상태보다 더 옛날의 모습을 보여주는 매우 소중한 예라 하겠습니다.

자음에 있어서는 중세국어의 ‘ㅅ’, ‘ㅍ’등과 관련된 사실 및 구개음화 등에 관심이 국한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 방언학의 관심이 이들에 쏠려 왔으니, 당연한 일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제주 방언은 별로 특기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국어사의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로는 중세 문헌에 ‘ㅂㅅ, ㅂㅈ’의 합용 병서로 표기된 어두음들이 서울말을 비롯한 육지의 방언들에서는 된소리로 되었는데, 유독 제주방언에서는 유기음 ‘ㅌ, ㅊ’로 변한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1952년 겨울에 임시수도 부산에서 대학졸업논문을 준비하면서 석주명(1947)을 뒤지다가 이 대응 규칙을 깨달았을 때의 일을 회상하면 지금도 재 가슴이 뛰니다(이기문 1955). 이것은 15세기에 어두의 ‘ㅂㅅ’이나 ‘ㅂㅈ’이 된소리가 아니었음을 말해주는 결정적인 증거로서, 이들은 문자 그대로의 자음군이었음을 결론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주 방언과 저의 첫 만남은 이렇게 감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뒤 56년 정월에 이승녕선생을 모시고 처음 이 섬의 흙을 밟았을 때 저로서는 무엇보다도 위의 대응 규칙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때에 저는 중세 문헌에 ‘ㅂㅅ, ㅂㅈ’으로 표기된 단어들의 일람표를 면밀히 만들어 가지고 왔었는데 이곳 어른들이 마치 중세어를 다 알고 있는 듯이 대답을 해 주어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언어의 비교 방법에서 음운 대응의 규칙이 있음을 책에서 읽은 일은 있었지만, 이 현지조사에서 그것을 처음으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뽕’(意), ‘튀’(芽)를 ‘뽏’, ‘튀’라 한 것은 예외였고 ‘뽕’(庭)과 ‘뽏’(滋)은 정확한 대응어를 얻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특히 흥미있는 사실은 ‘스ㄱ, 스ㅅ, 스ㅂ’등은 말할 것도 없고 ‘ㅂㅅ’, ‘ㅂㅈ’으로 표기된 단어들까지도 예외없이 모두 된소리로 대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국어사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거듭 깊이 음미해 볼 문제입니다.

몇몇 개별적인 사실도 우리의 주의를 끕니다. 지난 56년 정월의 조사에서 하루를 의미하는 명사가 ‘흐르리, 흐르레’와 같은 격형을 취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승녕(1957)에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 있음을 봅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중세국어에서 위의 명사는 단독형이 ‘흐르’였고 격형은 ‘홀리, 홀리’ 등이었습니다. 이 교체는 그보다 더 앞선 시기에 ‘흐롤’이란 단

일형을 가졌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인데, 제주 방언이 이 단일형 단계의 증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이 단계는 전기 중세 국어로 추정됩니다. 이보다 더 옛날로 올라가면 신라에서는 이 단어가 '*ᄃᆞᆫ'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사 '*ᄃᆞᆫ'(1)과 '올'이 합하여 된 말입니다.

또 하나의 예는 중세국어의 동사 '앉-'이 제주 방언에서는 '앗-'으로 나타나는 사실을 들어봅니다. 그런데,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중세국어 문헌에도 '앗-'이 보입니다. 중세국어의 '엿-'에 대응되는 방언형은 '머리 읍자-'(머리 엿다)에 남아 있습니다(현평효 1962). 이 단어도 15세기 문헌에 간혹 '엿-'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사실들은 이 두 동사가 15세기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ac-, *yac-였음을 증명해 줍니다(이기문 1964, 1977).

중세국어는 높낮이 음조를 가지고 있었고, 현대 서울말은 음장을 가지고 있는데, 제주방언은 높낮이도 없고 음장도 없음이 확인됩니다. 여기서 김정희의 「제주풍토록」에 “토인의 말소리가 가늘고 높기가 바늘로 찌름 같다”고 한 것과 「탐라지」에 “촌민의 사투리는 난삽하고 처음이 높고 뒤가 낮다”고 한 것이 우리의 주위를 끕니다. 아마도 예전에는 이 방언에도 높낮이가 있었던 것으로 믿어집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연구할 과제로 남겨 둡니다.

3

제주 방언의 연구는 형태·통사론 분야에서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어사 연구에 공헌하는 사실들이 적잖이 드러났습니다.

격 형태에서 보면 小倉進平(1931)는 제주 방언에 주격의 '래'가 있음을 증언하였습니다. 저도 1959년에 서귀포와 가파도에서 그 실제 용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이기문 1980). 평안 방언의 일반적인 주격 형태 '레'(모음으로 끝난 명사 뒤)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래, 레'가 중세 및 근대 문헌에 보이는 '뉘라(서)', '내라'등의 '이라'와 역사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이기문 1961).

이 보다도 더 큰 주목을 끄는 형태는 방위격 또는 향진격이라 일컬어진 '레, 더레'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몇몇 의견이 제시된 바 있지만(이승녕 1957, 강근보 1977, 강정희 1988 등) 저는 고대의 연격(prosecutive) 형

태의 '리'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중세국어에 이 형태의 흔적이 '이리, 그리, 더리' 등에 남아 있는데, 제주방언에서는 '이래' 그레, 제레'로 되었음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국어의 '리'는 통구스제어의 연격 형태 -li와 비교되는 것입니다(이기문 1975). 통구스제어에는 처격의 -du와 결합된 -duli가 있는데, 제주 방언의 '더레'는 이것을 방불케 합니다.

제주방언에는 용언 어간 중에서 'ㄹㅌ-' '만ㅎ-'와 같이 말모음을 가진 예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들에 대해서는 김홍식(1976, 1977)의 연구가 있습니다. 15세기의 국어에 'ㄹㅎ-, ㄹ-', '만ㅎ-, 많-'이 공존했으니, 이보다 조금 앞선 상태가 제주 방언에 보존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용언의 활용에도 소중한 어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주 방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어미 '-저'의 존재가 돋보입니다. 현평효(1975)의 자세한 논구를 통하여 이것과 「대명률직해」 등에 보이는 이두의 '齊'(저)와의 일치가의 의문의 여지 없이 밝혀졌습니다. 이 '齊'의 이른 용례는 13세기 초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어미와 신라 이두의 '之'의 관계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저는 국어와 알타이제어의 비교 연구에서 기원적인 동명사의 어미 -*m, -*n, -*r의 존재를 매우 중시합니다. 동명사의 어미가 알타이제어의 문법에서 매우 요긴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어미 중에 서로 대응되는 것들이 있음을 Ramstedt, Poppe 등이 지적한 바 있지만, 저는 위의 세 어미의 반사형들이 개별적으로 대응되는 점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이루는 체계가 일치하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m은 현재 또는 진행, -n은 과거, -r은 미래 또는 추측의 의미 특성을 보여줍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곳에 썼으므로 여기서 되풀이하지 않으려 합니다(이기문 1972 기타). 다만 중세국어에서 -n과 -r은 그 본래의 의미 특성을 지니고 있었지만 -m은 그것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주 방언의 '-암/엄-'의 용례들은 그 본래의 의미 특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이승녕 1957, 현평효 1975). 다른 어느 방언에서도 이런 사실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국어사 중에서 문법사는 아직 연구가 미숙한 단계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문헌과 방언 자료에 의한 문법사 연구가 진전된다면 제주 방언의 가치가 더욱 드러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4

제주 방언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그 어휘에 있습니다. 국어학을 전공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특히 어휘의 특이성이 돋보이게 마련입니다. 「남사록」과 「탐라지」가 제주 방언의 단어들을 든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래에 이 두 책의 예들을 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남사록」, 다음에 「탐라지」를 듭니다.

(1) 꽃 花	고지 高之	(藪)
(2) 오름 吾老音	오름 兀音	(岳)
(3) 굽 蹄	굽 蹄	(瓜)
(4) 굴레 勒	굴레 勒	(口)
(5) 녹대 祿大	녹대 祿大	(勒, 草竊)
(6) 가달 加達	가달 加達	(鐵銜)
(7)	서나 西那	(京)

두 책의 예들이, (7)을 제외하고는, 일치하는 점으로 보아 이 비슷한 기록이 예로부터 있어 왔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의 기록은 「地誌」와 「州記」로 부터의 인용입니다.

(1) 「동국여지승람」(권 38)에도 보이는 것으로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어원에 대해서는 확실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2) 신라 향가(혜성가)에 보이는 '岳音'을 제주 방언을 인용하면서 '오름'이라 읽은 이래(小倉進平 1929)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양주동(1942)은 「탐라지」만을 보고 '오름'이라 했으나 「남사록」의 표기는 분명히 「오름」을 보여줍니다.

(3) 현재 제주 방언의 '손콰, 발콰'의 '콰'에 남아 있습니다. 어두 자음과 모음에 변화가 있었는지는 더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세 문헌이 '손툽'과 '숯툽'의 공존은 보여주는 점이 흥미있습니다.

(4) 현대 제주 방언의 '굴레'는 "입을 조금 나뻐 이르는 말" (현평호 1962) 또는 "입을 알잡은 말" (박용후 1988)입니다. 이 '굴레'는 고대 고구려어에서 입을 의미한 xolč, koč(忽次, 古次)와 계통이 닿아 있는 듯하며 고대 일본어의 kuti (<*kultu)도 같은 계통인 듯합니다. (이기문 1967).

(5) (6) 이 두 단어가 몽고어 차용어임은 제가 밝힌 바 있습니다(이기문 1985).

(7) 중세국어의 '셔불, 셔울'은 '셔'와 '블'이 합한 것인데, 이것은 '셔'와 '나'가 합한 것입니다. '블'은 신라 지명에 '伐, 火' 등으로 표기된 것으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의미했습니다. (백제 지명에는 '夫罍'로 나타납니다) 이에 대하여 '나'는 고구려어의 '나, 노'(那, 奴) 및 남방통구스제어의 na(땅)와 일치하는 말입니다. 중세국어의 '나라'의 '나'도 여기서 기원한 것입니다.

일곱 예에 지나지 않지만, 이들은 제주 방언의 어휘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선택의 안목이 예사롭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휘에 관한 논의는 너무 장황하여 줄이려고 합니다. 다만 앞으로 제주 방언에 독특한 단어들을 찾아내는 일에 더 많은 힘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저는 50년대에 '도'란 단어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박용후(1988)에 이 단어가 실려 있습니다. "어구(出入口)"라 되어 있습니다. 현평호(1962)에는 '밭도'가 실려 있는데 "쌓은 담(牆)을 허물고서 밭 안으로 드나드는 목"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용례가 극도로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권44)를 보면 '旃檀梁'에 '城門名 加羅語謂門爲梁云'이란 주가 달려 있습니다. 고대 신라의 표기법에서 '梁'자는 그 새김 '돌'을 나타냈으므로 이렇게 읽으면 제주 방언의 '도'와 연결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문을 의미하는 만주어 duka, 여진어 duka, 일본어 do와의 연결도 가능합니다.

끝으로 위의 (5) (6) 과 관련하여 몽고어 차용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몽고어 차용어는 13, 14세기에 국어에 들어왔습니다. 말 이름, 매 이름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찾아 모은 몽고어 차용어는 50개를 조금 넘습니다. 앞으로 이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제주도 방언에는 몽고어 차용어가 무척 많다는 생각이 하나의 전설처럼 널리 퍼져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석주명(1947)에는 "몽고어와 관계 있는 것"이 240 단어나 된다고 하여 그 일람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는 막상 '늑대', '가달'과 같은 예는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주 방언의 몽고어 차용어는 중세국어의 그것과 대차가 없습니다. 제주 방언에 독특한 것으로는 '늑대', '가달' 등의 몇 예를 들 수 있을 뿐입니다.

5

제목은 큼직한데, 논술이 간략하여 미흡한 느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의 논술로는 제주 방언이 국어사 연구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음이 드러난 것으로 믿습니다.

국어사를 연구하는 학자에게는 제주 방언의 모든 것이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방언에 간직되어 있는 15세기의 초기 한글 문헌들이 보여주는 중세국어보다 예스러운 어형들은 소중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고행을 찾는 일은 보물 찾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그런 사실들을 여럿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15세기 중세국어보다 그리 오래지 않은 것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들이었습니다. 대체로 고려 시대 중엽, 기껏 그 초엽에 거슬러 올라가지 않을까 짐작되는 것들이었습니다. 다만, 문법 형태와 어휘에는 그 이전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들이 더러 눈에 띄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50년대에 제주도의 땅을 처음 밟았을 때 이 방언에 무한한 기대를 걸었던 저에게는 큰 아쉬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그때 영영 사라져 버린 고대국어의 모습을 이 방언에서 다시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제주 방언의 조사와 연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조사된 것들 중에도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주 방언이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여러 켤(층위)이 있습니다. 국어사 연구에는, 그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보수적인 켤이 중요합니다. 지금 제주 방언은 빠른 속도로 표준어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방언 조사가 시급합니다. 지금의 노년층이 생존하는 기간에 완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는 그 기회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절박합니다.

저는 제주 방언의 보존운동이 크게 전개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조상 대대로 이어온 이 방언이 현대에 와서 소멸된다면, 이것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될 것입니다. 지역 문화의 보존과 발전이 중요함은 새삼 말할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제주도의 고유 문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방언입니다. 이 방언에 관심을 가진 이 섬의 토박이 여러분의 분발을 간절히 바라면서 제 말씀을 그치겠습니다.

참 고 문 헌

- 강근보 1977 제주도 방언의 접미사 연구, 논문집(제주대학교) 9.
강정희 1988 제주 방언 연구.
김홍식 1976 어간말 모음 탈락에 대하여, 논문집(제주대학교) 8.
1977 용언의 말음 모음에 대하여, 논문집(제주대학교) 9.
김한근 1980 제주 방언 모음체계의 음향 분석, 현평효박사 회갑기념논총
박용후 1988 제주 방언 연구, 자료편.
석주명 1947 제주도 방언집.
양주동 1942 조선 고가 연구.
이극로 1937 '·'의 음가에 대하여 한글 5.8.
이기문 1955 어두 자음군의 생성 및 발달에 대하여, 진단학보 17.
_____ 1961 국어사 개설, 개정판 1972.
_____ 1964 동사 어간 '았-, 었-'의 사적 고찰, 조운제박사회갑기념논문집.
_____ 1967 한국어 형성사, 한국문화사 대계 5.
_____ 1977 제주도 방언의 'ㅇ'와 관련된 몇 문제, 이승녕선생고회기념 국어
학논총.
_____ 1980 가파도 방언의 특징, 현평효박사 회갑기념논총.
_____ 1985 '늑대'와 '가달'에 대하여, 국어학 14.
이승녕 1954 국어 음운론 연구, 제1집 '·'음고, 수정 보수판
1957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적 연구, 동방학지 3.
한평효 1962 제주도 방언 연구, 자료편.
1963 제주도 방언 '·'음 소고, 양주동박사회갑기념논문집.
1975 제주도 방언의 정동사 어미 연구.
1985 제주도 방언 연구, 논고편.
小倉進平 1929 郷歌 及び史讀の研究
1931 濟州島方言, 靑丘學叢 5.
河野六郎 1945 朝鮮方言學 試攷